장흥,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 대응…“중남권 균형발전”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 연계 기관 유치
사순문 군수 “중남권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 낼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정책 건의 등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흥군은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중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역별 균형배치와 중남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배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특히 통합 행정체계 출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주요 행정기능이 특정 권역에 편중될 경우 중남권의 행정·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남권 공공기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 기반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비롯해 천연물·한방 등 바이오산업 기반, 생태·문화관광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군은 이러한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농생명, 에너지·환경,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11개 기관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기능과 장흥의 입지 여건을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장흥에 이전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소비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흥을 중심으로 한 중남권에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휴부지와 기관별 입지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정주 지원과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등 공공기관과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수용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청사와 의회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재배치 과정에서 중남권 균형배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흥군의 입지 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적극 알리고, 기관별 기능에 맞는 유치 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사순문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행정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중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공공기관 배치 과정에서 중남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장흥의 해양·농생명·바이오 등 특화자원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고흥,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원도심 활력 등 모색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추진·핵심 전력 공유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최근 군청 흥양홀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법정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청사 흥양홀에서 ‘고흥군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부서 간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며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원도심 활력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자산 기반 소득 창출 확대, 생활 밀착형 정주환경 생활서비스 구축, 생애주기 맞춤 교육·돌봄 체계 구축, 문화향유·체류·소비 연결 체계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관계 부서 협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흥군의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인구 감소 대응은 전 부서가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며 “최종 계획 수립 시까지 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계획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 향교 활용…국가유산 가치 알린다

10월까지 ‘모두의 문화 놀이터’ 프로그램 선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보성문화원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보성향교 일원에서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보성향교, 모두의 문화 놀이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보성향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유산을 지역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연령과 참여 특성에 따라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차·공예·전통 소리를 접목한 ‘보성향교에서 펼쳐지는 보성판 문화살롱’,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보성향교 입문기-전통과 미래를 잇는 꼬마선비들’, 공연과 전통놀이를 즐기는 ‘보성향교 멋과 흥이 넘치는 날’이다.

사업의 첫 프로그램인 ‘차향 품은 향교 공방’은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21일과 26일 보성향교 명륜당에서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9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향교 체험과 전통 소리 토크살롱을 차례대로 운영한다. 10월에는 공연과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는 ‘보성향교 멋과 흥이 넘치는 날’을 열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행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보성군 누리집과 보성문화원 누리집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성문화원(061-852-2621)으로 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향교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과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국가유산이 지역의 일상 속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보성문화원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보성향교 일원에서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보성향교, 모두의 문화 놀이터’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청

여수, 추경예산 시민 체감 사업 재정 집중

섬박람회·민생·생활밀착형 투자…재정혁신 TF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재정을 집중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사업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7023억원보다 1346억원(7.9%) 증가한 1조837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109억원(7.2%) 증가한 1조6452억원, 특별회계는 237억원(14.1%) 증가한 1918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섬박람회 주행사장 기상악화 시 실내무대장 설치(2억원),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10억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지원(8억원), 야간 운행 운항결손액 지원(2억5000만원), 첨단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운영(2억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6억원), 어항 적치물·폐기물 처리비(1억2000만원), 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3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효율적 재무운영·하수도 정비 결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 ‘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에서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직전 평가(2024년 ‘다’ 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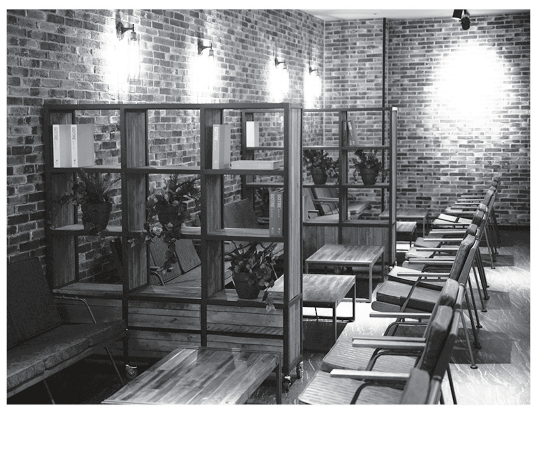
시는 영업수지 개선과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재무운영과 요금현실화,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전남도 최초로 조달청 혁신제품인 ‘무정전 활선세척’ 기술을 도입하고, 집중호우 대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기술혁신과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다.

올해는 재무운영성과, 요금현실화성과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